

改革期 中國의 티벳 政策: 分離主義 運動에 대한 中央의 '開發主義' 戰略*

(China's Policy for Ethnic Minorities: Central
'Developmentalist' Strategy toward Tibetan Splittist
Movement)

全 聖 興

- I. 서론
- II. 티벳 정책의 변천
- III. 티벳의 분리주의 운동과 중앙의 대응
- IV. 개발주의 전략의 추진
- V. 결론: 개발 요법의 한계

I. 서론

최근 중국이 이룩하고 있는 고도의 경제성장은 흔히 '중국위협론'의 근거가 될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서 국유기업 개혁이나 농촌현대화의 어려움 등을 실례로 들어 중국이 과연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함께, 개혁정책이 초래한 많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지역격차, 지방주의, 분리주의 등의 사회불안정 요인들이다. 그 중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

* 이 글은 1997년도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해외지역연구과제 보고서의 일부임. 본 연구 수행에 있어서 자료의 도움을 주신 정재호 교수께 감사드린다.

은 해당 지역이 연해를 비롯한 漢族 거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최근 독립 내지는 보다 완전한 형태의 자율을 요구하는 각종 소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술한 불안정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관된 문제로 중앙 정부가 국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골치꺼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티벳은 중국내에서도 소수민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수민족 지역 중 티벳(西藏)이 지니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티벳은 약 97%의 인구가 藏族(Tibetan)으로 구성되어 중국내에서 가장 높은 민족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¹⁾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언어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역사적으로도 강한 독립적 성향을 보여 주었던 지역이다. 또한 현재 티벳은 중국 전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시위 및 소요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동시에 이 지역 문제는 이미 달라이 라마의 망명정부 활동 등으로 상당히 國際化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도 하다. 즉 티벳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민족적 정체성, 종교문화적 특성, 경제적 낙후성, 국내외 정치성을 지닌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중국내에서 어느 지역보다 분리주의 운동의 잠재성과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티벳 문제는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와 국가통합 문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소수민족 문제가 중국내에서 민감한 정치사안으로서 연구, 조사, 자료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과 함께, 중국연구에 있어 티벳과 같은 소수민족 문제는 관심영역밖의 주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1) 1992년 현재 5개 소수민족 자치구 중 티벳을 제외하고서는 新疆만이 약 62%의 非漢族 구성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40% 미만의 인구 비중으로서 대부분 漢族에 동화되어 있다. Alan P. L. Liu, "Ethnic Separatism," *Mass Politics in the People's Republic: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China*(Boulder: Westview Press, 1996), p. 192.

2) 물론 티벳을 가장 과격한 독립 운동이 전개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분리주의의 과격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新疆 지역 등에서 동터어키공화국의 선포, 테러, 폭력시위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활동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Raphael Israeli, "A New Wave of Muslim Revivalism in Mainland China," *Issues & Studies*, Vol. 33, No. 3(March 1997), pp. 21-41.

반영하는 한 현상으로서 티벳연구는 藏學(Tibetology)이라는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을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³⁾

상술한 연구의 한계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티벳 사회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중앙정부가 티벳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즉 티벳지역을 대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⁴⁾ 중앙의 티벳 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이 글은 본문에서 다음 몇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毛澤東 시기와 비교하여 改革期에는 티벳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둘째,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개혁기에는 다른 분야의 정책에서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다 유효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렇다면 왜 티벳 문제는 보다 심각해 지는가? 셋째, 갈수록 심각하게 전개되는 분리주의운동에 대한 중앙의 대응 및 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이는 어떤 정책 효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등이다.

II. 티벳 정책의 변천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다. 인구 구성에 있어서 전체의 약 92%가 漢族이며 소수민족은 8%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구 면에서 소수민족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 티벳연구는 일찌기 선교사, 여행자, 언론인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학문적 연구는 1959년 달라이 라마의 인도 망명 이후 서구에서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티벳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회과학적 접근이 최근 시도되고 있으나 티벳 현지 조사에 대한 제약과 연구자들의 인식상의 문제로 인해 현재 티벳 내부의 현황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의 티벳 지배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지나치게 기존 연구들이 치중하는 경향을 극복하고 중국의 티벳 통치가 초래한 실제 경제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Tsering Shakya, "Introduction: The Development of Modern Tibetan Studies," Robert Barnett ed.,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p. 1-14.

4) 중국의 티벳정책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관련 연구도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 인터뷰 등의 조사방법도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분야의 중국 학자 및 관료 등과의 인터뷰 및 대화 내용을 일부 첨가하되, 공식문건, 통계자료, 학술논문, 선전자료 등 주로 1998년 여름 중국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리를 중심으로 주제를 서술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재정 투자를 비롯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소수민족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이들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 지역의 면적은 총 616만km²로서 전체 국토의 6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사실상 상대적인 인구 비중은 낮지만 약 1억에 가까운 전체 소수민족수는 웬만한 국가 규모를 능가하는 것으로 결코 “소수”로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소수민족 대부분이 국경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주변국가나 동일민족들이 중국 소수민족들의 동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가 주변국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소수민족 지역은 석유, 석탄, 금을 비롯한 주요 지하자원이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으며 육류, 우유, 면 등의 주요 원산지이기도 하다.⁶⁾ 즉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의 외교, 안보, 경제, 정치 등의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 지역의 안정은 중국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런 통합 정책은 수시로 소수민족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역사적으로 한족과 소수민족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런 점에서 소수민족 지역의 안정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은 중국의 일관된 목표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소수민족의 전통을 부정하고 자율을 억압하는 급진적인 ‘同化政策’과, 소수민족의 전통 및 문화를 인정하고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온건한 ‘寬容政策’이라는 두가지 기본 노선으로 구분된다. 시기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대비되는 것은 바로 개혁 이전과 이후의 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다.

5) Colin Mackerras, "The Minorities: Achievements and Problems in the Economy, National Integration and Foreign Relations," Joseph Y. S. Cheng ed., *China Review 1998*(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98), p. 284.

6) 그밖에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중국 당국의 성공적인 통합 정책이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소수민족 지역의 관광산업이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소수민족 문제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다. June Teufel Dreyer, "Ethnic Minorities and National Integration," *China's Political System: Modernization and Tradition*(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6), pp. 279-282.

1. 毛澤東 시기

먼저 毛澤東 시기에는 階級鬭爭에 기초한 강경한 동화정책이 기본적인 정책 기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毛澤東 시기 전반에 걸쳐 동화정책 일변도의 급진주의적 정책만이 견지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기간 중에도 상대적인 同化 속도의 완급이나 관용의 정도에 따라 시기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946-49년 내전시기에는 국가의 단결을 촉진하기 위해 統一戰線 전략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소수민족에 대해 전통관습의 인정, 지역출신 엘리트의 자치지역 지도부 참여 등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건국 직후에도 소수민족 지역에 대해서는 '社會主義 改造' 작업을 연기하거나,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 土地改革을 차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유연한 정책을 채택했다. 이는 統一戰線의 이데올로기적 기조 유지라는 측면 외에,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고려에서였다. 즉 당시 중앙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으므로 지역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조사, 평가,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 모색 등의 사전 작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소수민족 관련 주변국가와 중국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도 하였다.⁷⁾

따라서 한족 지역과 달리 소수민족 지역을 구별하여 '社會主義建設'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소수민족의 자율성과 문화적 다양성도 인정하였다. 또한 소수민족 전체를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대체로 지역 실정과 민족 특성에 맞는 융통성있는 정책을 추진했다.⁸⁾ 그러나 1956년 이후 百花齊放, 反右派鬭爭, 大躍進運動 등을 겪으면서 강경한 정책으로 선회하였고, 이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文化大革命 기간 중에 보다 급진적인 노선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중국이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취한 정책은 다음 두가지이다. 첫째, 소수민족 거주지역에 대해 특정 범위내에서 자율을 허용하는 소위 '자치지역'(區, 州, 縣, 鄉 등 단위의 自治區域)을 건립하는 것이었고, 둘

7) Dreyer, "Ethnic Minorities and National Integration," pp. 284-288.

8) 이는 각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맞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분권화(權力下放) 정책의 기본 취지(因地制宜)와 연계되어 '因族制宜'의 원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木槓 主編, 『邊疆少數民族地區社會穩定與發展』(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185쪽.

제는 集産化(collectivization), 즉 人民公社化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社會主義改造’를 추진함으로써 ‘봉건적 사회’를 ‘문명화’하려는 조치(civilizing project)였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에게 있어서 前者는 관료주의적 통제를 확장하는 것으로, 後者は 소수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말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⁹⁾ 따라서 이런 소수민족 통치 작업은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소수민족의 저항은 중앙 정부로부터 地方民族主義(local nationalism)로 규정되어 철저히 탄압되었던 것이다. 특히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는 “소수민족 문제는 계급문제”라는 인식하에, 소수민족의 특수성을 인정한 기존의 다원주의적 정책이 사회주의적 동질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부정되는 등 급진적인 동화정책이 추진되었다.¹⁰⁾ 티베트의 경우, 이런 소수민족 정책이 대략 다음과 같은 시기별 변천을 보여 주고 있다.

그간 티베트의 역사적 독립성에 대한 문제는 오랜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티베트에 대한 역사적 지배 사실을 주장하는 중국 당국과 독립 국가로서의 티베트의 역사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티베트 민족(藏族) 간의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¹¹⁾ 이를 명확히 규명하긴 쉽지 않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1950년 중국 人民解放軍의 무력 진공 이전까지 중국은 어떤 지배-복종 관계하에서든 티베트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나 지배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위 ‘평화적 해방’(和平解放)을 위한 중국의 제의를 거절한 티베트에 인민해방군이 진입함으로써 중국통치하의 티베트 현대사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의 티베트 점령 이후 1951년 중국과 티베트는 ‘17개항의 협정’(關於和平解放西藏辦法的協議)을 체결하였다.¹²⁾ 당시 티베트의 기존 제도를 유지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農奴制의 사회 기초와 ‘政教合一’의 정치제도가 지속되었고, 경제는 기본적으로 寺廟

9) Liu, "Ethnic Separatism," p. 200.

10) 毛 시기에 있어서 이런 소수민족 정책의 주기적 변화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Liu, "Ethnic Separatism," pp. 200-205; Dreyer, "Ethnic Minorities and National Integration," pp. 284-293; Alvin Magid, "Handle with Care: China's Policy for Multiculturalism and Minority Nationalities," *Asian Perspective*, Vol. 22, No. 1 (Spring 1998), pp. 9-17.

11) 티베트 독립에 대한 각각의 입장과 주장을 정리한 자료는 A. Tom Grunfeld, "Appendix B: Independence," *The making of Modern Tibet* (New York: M. E. Shape, 1996), pp. 254-264.

12) 그 과정과 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Yuan Shan, "Dalai Lama and 17-Article Agreement," *Beijing Review*, May 13-19, 1991, pp. 16-20; 廖祖桂, 「西藏的和平解放」(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1), 1-111쪽.

經濟(또는 宗教經濟)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정치, 경제, 종교간의 三位一體형의 사회구조는 1959년에 이르러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된다. 즉 1959년 티벳정부 및 지배 엘리트들은 大躍進運動 시기의 억압적인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무력폭동을 일으켰으나 진압되고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일부 추종자들은 인도로 망명하였다. 그 뒤 중앙정부는 티벳에 대해 소위 '民主改革'이라는 대대적인 티벳 개조 작업을 전개하였다.¹³⁾ 이로써 티벳에서 농노제가 폐지되고 사원은 행정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정부관리, 귀족, 사원(상층 승려)으로 구성된 소위 '三大領主'들이 토지, 가축, 농노들을 소유하였으나 민주개혁을 통해 농노와 노예는 자유인이 되고 토지와 가축은 농노와 노예들에게 분배되었다.¹⁴⁾

그 뒤 1965년에 소수민족 중 가장 늦게 티벳지역에 자치구(西藏自治區)가 정식으로 건립되었고 이때부터 1976년까지는 '社會主義改造'가 추진되었다. 이 기간 중 티벳의 대부분 지역에 人民公社 제도가 도입되었다. 티벳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융통성있게 운영된 편이나¹⁵⁾, 전반적으로 階級鬭爭의 기치하에 티벳에 대한 억압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⁶⁾ 文化大革命 기간 중 극좌노선의 파괴적 행위가 미친 영향은 무엇보다 사원과 승려의 숫적 감소에서 잘 나타난다. 예컨대 1958년 2,771개의 사원과 114,103명의 라마승이 존재했으나, 1959년 사태 이후인 1960년에는 370개의 사원과 18,104명의 승려로 감소되었다. 文革 직전인 1964년에 563개의 사원과 7,000명의 승려가 정부로부터 인정되었으나, 文革 기간 중의 충격과 파괴행위로 인해 1976년에는 8개의 사원과 800명의 승려만이 남게 되었다.¹⁷⁾ 이런 급진주의적 성향의 소수민족 정책은

13) 1950-59년 사이의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Warren W. Smith, "The Nationalities Polic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Socialist Transformation of Tibet," Barnett ed.,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pp. 51-75; 中國西藏自治區 黨史資料徵集委員會, 『中共西藏黨史大事記(1949-1966)』(西藏人民出版社 內部發行, 1990).

14) 馬戎, 『西藏的人口與社會』(北京: 同心出版社, 1996), 182-183쪽.

15) 예컨대 보통 기타 지역에서는 3級單位이나 2級單位도 가능하며 生産隊 규모도 30 戶보다 크거나 작아도 되었다. 생산수단의 공유 정도에 있어서도 초급합작사, 고급합작사, 내륙의 인민공사 형태 등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肖傳江, "西藏國民經濟發展的輝煌成就與政策傾斜," 『西藏研究』, 1995年 第3期, 31쪽.

16) Ronald D. Schwartz, *Circle of Protest: Political Ritual in the Tibetan Uprising*(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p. 11-14.

17) 馬戎, 『西藏的人口與社會』, 184쪽.

문화대혁명 후반기에 들어 소수민족어 방송의 재개 및 소수민족어 서적의 출판을 허용하는 등 다소 완화된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다.¹⁸⁾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측면에서의 정도 차이일 뿐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는 1970년대말 개혁노선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개혁기

과거의 계급투쟁 노선에서 탈피하여 경제발전을 제1의 목표로 설정한 개혁 개방 시기에 있어서 중국의 전반적인 국가정책은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다. 티베트를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 역시 과거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추진되었던 급진적인 동화 정책과는 달리 소수민족의 자율과 전통문화를 보장해주는 등 유화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법제적 측면에서 보면, 개혁 이후 소수민족에 대한 중앙의 정책 방침은 1982년 [헌법]과 1984년 [소수민족법](民族區域自治法)에 잘 명시되어 있다.¹⁹⁾ 이에 의하면, 소수민족 자치지역의 정부 최고지도자는 소수민족 출신이어야 한다는 원칙 외에, 지방정부는 상당한 정도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일정 부분 예산에 대한 처분권을 지니고 관공서 공무 집행 및 학교 교육시에 모국어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중앙 법률은 상급의 허가를 받아 탄력적으로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한 자녀로 제한된 산아제한(計劃生育)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종 세제·교육·농촌 빈곤구제 등의 방면에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²⁰⁾

티베트의 경우, 중앙 정책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1980년 5월 胡耀邦 총서기의 티베트 방문이었다. 당시 중국정부는 티베트에

18) June Teufel Dreyer, "Ethnic Minorities and National Integration," p. 293.

19) 이것의 국내 번역본은 다음을 보라. 강명상, 『중공의 소수민족정책』 (서울: 용성 출판사, 1988), 320-349쪽.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 분석은 Binh G. Phan, "How Autonomous Are the National Autonomous Areas of the PRC?: An Analysis of Documents and Cases," Issues & Studies, July 1996, pp. 83-108. 개혁 이후 (1979-1990) 소수민족 관련 주요 문건들을 수록한 자료로는 國家民族事務委員會·中共中央文獻研究室, 『新時期民族工作文獻選編』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0).

20) 國家民族事務委員會·中共中央文獻研究室, 『新時期民族工作文獻選編』, 235-250쪽.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티벳지역의 생활 수준이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중국통치에 만족한다”는 지방 보고에 근거하여 인도 망명정부가 요구한 티벳조사방문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절단이 “예상 외로” 티벳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데 대해 당황한 胡耀邦 총서기는 진상조사차 직접 티벳을 방문하게 되었다. 胡耀邦은 티벳의 낙후된 경제실상과 급진주의적 정책의 폐단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티벳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²¹⁾ 예컨대 세제개혁, 종교문화 활동의 허용, 티벳인에 의한 티벳통치 등 6개 항의 주요 조치와 함께 티벳 지도부를 교체하였다.²²⁾

그 후 티벳에 대해 추진된 개혁 지도부의 우호적인 정책과 그에 따른 티벳 사회의 변화상은 종교 활동, 경제개혁, 정치사회적 특혜 등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1980년 이래로 종교자유 정책이 추진되어 많은 종교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우선 중앙정부는 문화대혁명 기간중의 오류와 손실을 회복·보상해 주었다. 또한 많은 종교 시설이 복구·건설되었고 라마승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1976년의 8개 사원과 800명의 라마승으로부터 1986년에는 234개의 사원과 6,466명의 라마승으로 늘어났고 1990년에는 라마승의 수가 다시 34,680명으로 4년만에 약 5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1994년에 1,552개의 사원과 41,800명의 승려로 발전하였다. 또한 1980-1994년 사이에 중앙 및 티벳정부는 총 2억 6천만 원(인민폐, 이하 同)의 특별 자금을 투자하여 포탈라 궁전을 비롯한 1,400여개의 사원에 대한 복원 및 개축 작업을 전개하였다.²³⁾ 이로써 1997년 10월 현재 티벳자치구내에는 1,700개의 사원과 인구 2%에 이르는 약 46,000명의 승려가 활동하고 있다. 그밖에 티벳불교협회에서 1985년부터 발행하는 잡지 Buddhism in Tibet을 비롯하여 각종 종교서적의 출판사업도 활발해졌다.²⁴⁾ 이런 사원의 복구와 승려 수의 증가, 그리고 출판사업의 활성화에

21) Schwartz, *Circle of Protest*, pp. 15-18; Grunfeld, *The making of Modern Tibet*, p. 224.

22) 胡耀邦의 티벳 방문 및 6개항의 개혁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ng Yao, "Hu Yaobang's Visit to Tibet, May 22-31, 1980: An Important Development in the Chinese Government's Tibet Policy," Barnett ed.,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pp. 285-289.

23) 馬戎, 『西藏的人口與社會』, 184-185쪽.

24)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PRC, "Tibet: Its Ownership and Human Rights Situation," *Beijing Review*, September 28-October 4, 1992, p. 32.

따라 최근 티벳 사회에서는 일반 농목민 뿐만 아니라 간부 및 지식인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종교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²⁵⁾

둘째, 티벳지역에 대한 개혁 정책은 人民公社 제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 체제의 수정 외에 여러 가지 특혜 부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 티벳에 도입된 개혁과 주요 특혜정책은 다음과 같다. 1980년 중앙은 [第1次西藏工作座談會]를 개최하여 소위 '티벳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休養生息政策)을 제기하였다. 티벳자치구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放, 免, 減, 保'의 정책 조치를 통해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즉 '放'은 보다 개방적이고 관대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隊(생산대), 組(생산조), 戶(농가)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免'은 농업 및 목축업에 대한 세금 징수를 면제하는 것이다. '減'은 대중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체의 경제적 분담금 납부 임무를 폐지하는 것이다. '保'는 農牧民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의 공급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그 후 1984년에 개최된 [第2次西藏工作座談會]와 同年 8월에 중앙 지도자들의 티벳 시찰 이후 보다 우호적인 정책이 제기되었다. 즉 소위 '두가지 장기 불변'(兩個長期不變)의 정책방침이다. 이는 "공유제의 기초위에 토지, 목초지, 삼림 등이 농가에 분배됨으로써 농민은 사용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게 되고, 가축 역시 개인소유로 사육 및 자율 경영토록 허용하는 두 정책이 장기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²⁶⁾ 또한 같은 해 9월 중앙은 티벳에 대해 수출입 업무의 자주권과 경영권을 이양해 줌으로써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²⁷⁾

세제방면에 있어서도, 중앙은 티벳에 대해 세금 징수 및 감면권 등을 지방 자율에 위임하고, 전국에서 세금종류가 가장 적고 세율이 가장 낮으며, 세수 전액이 지방에 유보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94년 [第3次西藏工作座談會] 이후에는 이런 특혜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地方稅種의 설정 및 징수권, 稅目 및

25) 馬戎, 『西藏的人口與社會』, 185쪽; 江平 主編, 『西藏的宗教和中國共產黨的宗教政策』(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6), 106-108쪽.

26) 肖傳江, "西藏國民經濟發展的輝煌成就與政策傾斜," 31-32쪽.

27) 陳家勤 主編, 『沿邊開放: 跨世紀的戰略』(北京: 經濟科學出版社, 1995), 230-231쪽. 티벳 농촌 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肖懷遠 主編, 『西藏農牧區改革與發展』(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4).

稅率의 確定 및 減免권을 계속 자치구에 위임하는 동시에, 티벳에서 징수한 중앙세 및 公同세 中의 中양 稅을 모두 되돌려 주며, 농업세(農牧業稅)의 지속적인 면제와 2000년까지의 鄉鎮企業 소득세 면제, 그리고 티벳내 자체용도의 수입품에 대한 낮은 관세 적용 등의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외무역 부문에 있어서도 자치구에 대해 일부 수출입경영권을 위임하고, 티벳제품의 수출 허가증 발급 권한 부여, 외화수입의 전액 유보 등의 특혜를 부여하였다.²⁸⁾

무엇보다 경제면에서 티벳에 대한 중앙의 우호적인 정책은 국가 투자 부문에서 잘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개혁 이후 기본건설 투자, 기술개조 투자 프로젝트의 허가권을 기업 및 지방에 이양하였다. 이로써 투자주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과거 주요 투자주체였던 국가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티벳에 대한 중앙의 투자는 여전히 국가투자 위주라는 편중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즉 “교통, 에너지, 통신, 종합개발 등 대형프로젝트와 사회발전프로젝트에 대하여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重點支持)하며, 고정자산투자에 대하여는 자금을 우선 보장(優先保證)하며, 생산성 건설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선 고려(優先考慮)한다”는 원칙하에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²⁹⁾ 예컨대 지난 약 40년간 국가가 티벳에 지원한 재정지출은 재정보조금(157億元)과 자본건설투자(42.7億元)을 합쳐 약 200억원에 상당한다. 그리고 1979-86년 사이에 집행된 국무원 각 부처(部委)에서 마련한 특별보조금만 59億元이 집행되었다. 그밖에 1990년대 들어 실시되고 있는 매년 재정보조금이 평균 약 10億元으로서 수혜자 1인당 평균 기준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³⁰⁾

셋째, 정치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었다. 먼저 인사면에서 헌법 및 소수민족법에 규정된 바대로 티벳자치구 人大常務委員長 및 자치구 主席은 모두 티벳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요 지도급 직위의 현지인 구성이 개혁 후 점차 증대되어 현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³¹⁾ 예컨대,

28) 肖傳江, “西藏國民經濟發展的輝煌成就與政策傾斜,” 33쪽.

29) 肖傳江, 위의 글.

30) 기타 지난 수십년간 티벳에 대한 정부 지원 내역과 '85 계획' 기간중의 건설지원계획에 대해서는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PRC, "Tibet: Its Ownership and Human Rights Situation," pp. 40-42.

31) 개혁 이후 티벳의 현지인 간부 비중의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ollis S. Liao,

1998년 현재 人大常務委員會 委員長 및 副委員長의 71.4%, 常務委員會의 80%, 그리고 자치구의 主席 및 副主席의 77.8%가 티베트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993년 지방선거 결과에 의하면 99.8%의 鄉鎮長, 98.6%의 縣長, 96%의 人民法院長, 89%의 人民檢察長이 소수민족 출신이다.³²⁾ 순수 티베트인 간부의 비율은 전체 72.1%를 차지하는데, 그 중 省級 단위의 경우가 67.7%, 地級 단위가 64%, 縣級 단위가 6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³³⁾ 그리고 종교인사들의 정치 참여도 두드러져 1992년 현재 615명의 종교인사들이 人民代表大會 및 政治協商會議 위원, 정부 관리 및 불교 협회 간부로서 종사하고 있다.³⁴⁾

간부 인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은 한족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현대적 감각이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어 그 중 극소수 정예요원만이 주요 당정 간부로 충원되어 왔다. 무엇보다 소수민족에 대한 불신은 중국의 주요 당정 지도급 직위에서 소수민족이 매우 낮은 대표 비율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간부들의 인사에 있어서 그나마 유지되는 소수민족 대표성은 주로 통일전선의 이데올로기적 상징성과 함께, 소수민족 지역의 자체 관리나 중앙의 소수민족 업무 담당에는 소수민족 간부가 비교적 유리하다는 기능적 효율성이 고려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소수민족들이 균등한 비율로 당정 지도부에 발탁되어 개별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앙 및 지방의 주요 당정 지도급 인사에 대한 민족 구성을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1994년 소수민족 전체의 간부 대표 비율은 8%로서 전체 인구(한족-소수민족간)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The Recruitment and Training of Ethnic Minority Cadres in Tibet," *Issues & Studies*, Vol. 31, No. 12(December 1995), pp. 55-67.

32)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PRC, "New Progress in Human Rights in the Tibet Autonomous Region," *Beijing Review*, March 9-15, 1998, p. 13.

33) *Beijing Review*, April 4-17, 1995, p. 19. 그리고 국가연구기관의 한 전문가에 의하면 30% 미만을 차지하는 한족 간부도 대개 3년을 기준으로 파견 근무식으로 수시 교체(定期輪換)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티베트사회를 관리는 티베트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북경현지인터뷰(1998. 8. 11.)

34)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PRC, "Tibet: Its Ownership and Human Rights Situation," p. 32.

주고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의 대표율 분포는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 전체 인구의 약 1.4%(1990년)로서 소수민족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壯族의 경우, 1994년 중국내 주요 당정 간부 민족대표 비율이 0.6%인데 비해, 전체 인구의 0.4%(1990년)로서 소수민족 중 9번째로 인구가 많은 티벳의 경우엔 티벳인 간부가 총 간부수의 2.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대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蒙古(1.2%), 위구르(1.0%), 回族(1.0%)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는 대체로 인구 비중을 근거로 각 소수민족의 간부 대표 비율이 결정되나 漢族에의 同化 정도가 낮은 소수민족, 즉 강한 분리주의적 성향을 지닌 소수민족의 경우 주요 간부에 보다 많이 발탁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티벳인 간부들의 높은 대표 비율은 중앙정부가 티벳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며 상대적으로 티벳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³⁵⁾

교육 분야에 있어서, 개혁 후 藏學研究中心을 설립하여 티벳 민족문화와 티벳어문학 연구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87년 7월 티벳자치구 인민대표 대회에서 “티벳어를 학습·사용·발전시키는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티벳어 사용을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각급 학교에서 티벳어 강의를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3-1996년 사이에 초등학교를 위한 티벳어 교재도 출판되었다. 아울러 1997년에는 자치구 정부가 컴퓨터용 티벳어 코드를 개발함으로써 티벳어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⁶⁾ 또한 1985년부터 공립중점 초·중등학교 및 변경지역 초·중등학교의 농목민 자녀에 대해 의식주 문제를 보장해주는 ‘三包’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³⁷⁾ 이런 티벳의 개혁과 중앙의 지원 정책으로 티벳사회는 개혁 이전에 비해 두드러진 경제발전을 보여 주었다.³⁸⁾ 예컨대 1978년 농촌인구 1인당 평균

35) 조사 대상이 된 당정 주요 간부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 책임자급(부장 및 부부장 포함), 위원회 위원, 당 중앙 각 부처 책임자급, 각 성급 지도자, 주요 대도시 지도자 그룹으로서 총 907명으로 되어 있다. Xiaowei Zang, "Ethnic Representation in the Current Chinese Leadership," *China Quarterly*, No. 153(Mar. 1998), pp. 107-127.

36) Mackerras, "The Minorities: Achievements and Problems," p. 299; 溫秀芳, “民族區域自治與西藏人權問題,” 『西藏黨校』, 1995年 第3期, 30쪽.

37) 馬戎, 『西藏的人口與社會』, 191쪽. 개혁 후 교육 분야의 발전상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多杰才旦, 『西藏的教育』(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1).

38) 티벳 서부지역의 한 鄉(Phala)의 유목민 생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경제 및 사회문화적 측

순소득이 119元이었는데, 1990년에는 447元으로, 그리고 1994년에는 1183元으로 각각 약 2.6배 및 10배로 증가되었다.³⁹⁾ 그러나 이런 우호적인 정책 추진과 일부 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티벳지역은 개혁 이후 오히려 독립요구와 분리주의의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III. 티벳의 분리주의 운동과 중앙의 대응

1. 분리주의 운동의 전개와 원인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중국사회의 통합을 위협하는 티벳의 분리주의 운동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티벳자치구를 중심으로 중국 국내에서 전개되는 독립 및 자치 확대를 위한 각종 소요와 시위 사태이다. 예컨대, 1987년 3차례에 걸친 시위사태를 비롯하여 1988년 3월의 폭동, 계엄령선포를 가져왔던 1989년 3월의 폭동, 1993년 5월 인플레에 대한 불만에서 시발되어 독립 요구 시위로 확산되었던 反정부 시위, 그리고 1996년 12월 라사시의 한 區政府 청사앞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 사건 등이다. 이 기간 중에서도 개혁정책을 통해 티벳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중앙의 티벳 전략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1987년 시위로부터 시작하여 天安門事件과 治理整頓 정책의 보수노선을 경유하여 南巡講話가 제기된 1992년까지만 해도 약 140회에 달하는 티벳인들의 反정부 및 독립 요구 시위가 있었다고 한다.⁴⁰⁾

둘째, 달라이 라마의 망명정부가 해외에서 전개하는 反정부 활동을 들 수 있다. 티벳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지는 달라이 라마의 명성과 그 활동으로 인한 효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실은 티벳에 비해 훨씬 과격하고 급

면에서 이런 개혁의 긍정적 효과들을 설명한 것으로 다음을 참조. Melvyn C. Goldstein and Cynthia M. Beal, "The Impact of China's Reform Policy on the Nomads of Western Tibet, Asian Survey, Vol. 26, No. 6(June 1989), pp. 619-641.

39) 馬戎, 『西藏的人口與社會』, 185쪽. 지방 재정수입의 증가, 산업구조의 개선, 소유제구조의 다양화 등 기타 개혁의 성과 및 경제발전 현황에 대해서는 尙傳江, "西藏國民經濟發展的輝煌成就與政策傾斜," 33-36쪽.

40) *Ibid.*, p. 1.

진적인 분리주의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는 新疆 지역과 비교해 볼 때도 잘 알 수 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벳인들이 분리주의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티벳문제를 잇슈화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존재하고 있다.⁴¹⁾ 그 대표적 성과로서 달라이 라마는 티벳 인권과 독립을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한 평가로서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망명정부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정당성 확보와 함께 다시 한번 티벳문제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크게 홍보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다.⁴²⁾ 1996년 7월 '진정한 자치' 요구를 포함하여 중국의 티벳이주 정책 및 티벳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영국 의회에서의 연설, 1997년 3월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 및 駐대만 티벳사무소 개설의 합의, 그리고 1997년 4월의 미국 방문 등은 티벳의 독립 혹은 자치 확대를 위해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펼쳐지고 있는 티벳 망명정부의 주요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³⁾

셋째 인권문제 등을 제기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압력이다. 특히 미국은 1950년 중국의 티벳 점령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反共의 차원에서 티벳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티벳의 저항운동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전개된 양국간의 관계정상화 추세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중국이 지니는 전략적 위상의 제고로 인해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티벳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고 1978년에 이르러 마침내 미국은 티벳이 중국의 일부분임을 확인하였고, 그 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티벳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서 티벳문제는 대만문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딜렘마라고 할 수 있다. 즉 티벳 인권 및 독립 문제에 동조적인 미 의회의 압력이라는 국내정치적 요인과 국제여론, 중미관계의

41) 티벳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존재하는 달라이 라마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어느 티벳 승려의 표현을 빌면, “중국에 毛澤東이 있다면 우리에게 달라이 라마가 있다”는 것이다. ASHILD KOLAS, "Tibetan Nationalism: The Politics of Relig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3, No. 1(1996), p. 57.

42) 사실상 티벳문제의 국제화는 1980년대 중반 중국과의 협상이 깨짐으로써 달라이 라마가 돌과 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시도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달라이 라마의 5가지 구체적 활동에 대해서는 Grunfeld, *The making of Modern Tibet*, p. 231.

43) Mackerras, "The Minorities: Achievements and Problems," pp. 294-300; 304-305.

갈등구조, 미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티벳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럴 경우 미국은 중국과의 우호관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티벳에 동조적인 조치들을 취하려 해 왔다.⁴⁴⁾

예컨대 1997년 4월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고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이 중국에 대해 티벳 지도자와의 대화를 촉구한 사실, 그리고 동년 10월 江澤民 주석의 미국 방문 기간 중 티벳문제를 양국 간의 현안으로 상정한 것과 미 국무성이 티벳 담당 특별조정관(special coordinator)을 임명한 것, 그밖에 미 의회에서 두 라디오 방송국(Radio Free Asia 및 Voice of America)의 중국 방송을 위한 예산 배정과 함께 표준어(普通話), 廣東語 외에 티벳어 방송의 추가를 결정한 것 등을 들 수 있다.⁴⁵⁾ 이런 미국의 주도적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티벳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국에 대한 압력 행사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단적인 예로서 1997년 12월 국제사법위원회는 장문의 보고서를 통해 티벳 탄압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비난하는 한편 중국의 티벳통치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⁴⁶⁾

이 삼자간에 조직적인 연계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긴밀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각각의 활동이 상호 상승작용을 지님으로써 중앙정부로 하여금 티벳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내 소요사태는 망명정부의 입지와 협상력을 강화시켜 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티벳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와 對중국 압력을 가중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의 이런 지원은 티벳인들의 독립 내지 자율 확대 요구 운동을 한층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 毛澤東 시기와 같은 급진적인 동화 정책이 밑으로부터의 강한 저항을

44) 물론 이것이 약소민족의 주권과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대외적 실천이기도 하지만 티벳문제는 對中 카드로서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티벳문제가 중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티벳, 중국, 미국 삼자간의 입장과 정책을 분석한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Melvyn C. Goldstein, “Tibe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Reflections on the Tibet Question”(An occasional paper of the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April 1995), pp. 1-72.

45) 이런 미국의 티벳정책에 대해서는 Guangqiu Xu, “The United States and the Tibet Issue,” Asian Survey, Vol. 37, No. 11(Nov. 1997), pp. 1062-1077.

46) Mackerras, “The Minorities: Achievements and Problems,” p. 304.

불러일으켰다면, 소수민족의 자유훈과 발전을 보장해 주는 다원주의적인 관용 정책은 자발적인 순종과 중앙통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것이라는 고려가 개혁기 중앙정부의 전략적 기초가 되었다. 1980년대의 티벳에 대한 개혁과 특혜 정책 역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혁론자들은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이 사회안정을 보장해 주고, 이로써 티벳인들은 중국의 통치를 인정하고 漢族을 억압자 보다는 현대화 추진자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다.⁴⁷⁾ 그러나 티벳에 대한 관용정책과 개혁정책을 통해 티벳인들에게 중국의 티벳통치의 정당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티벳의 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한 중앙의 티벳전략은 예기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티벳 소수민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기초가 급진적인 동화로부터 유화정책으로 변화된 개혁 개방 시기에 왜 불만이 고조되고 불안정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인가?

중앙의 기대와는 달리 티벳 사회의 분리주의 운동이 가속화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중국의 기타 지역과 분야에서는 文化大革命의 과오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개혁정책이 대중의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나 소수민족, 특히 티벳의 경우 文革期の 오류 인정은 단순히 정권 지도부에 대한 비판 차원이 아니라 사회주의 통치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⁴⁸⁾ 티벳에 대한 통제 완화와 종교활동 허용은 전통문화 및 생활양식의 부활을 가져왔고, 이는 티벳인의 민족 자각과 독립 정서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관료통제의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 역시 중국의 기타 지역에서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었으나, 티벳의 경우 이는 자연경제(natural economy)로의 복귀 현상을 초래하여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종교의 부활을 촉진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⁴⁹⁾ 둘째, 중앙정부는 경제개혁을 통한 생활수준 개선이 소수민족의 불만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비록 일부 경제 발전의 효과가 있긴 하였으나 그보다 연해를 비롯한 발전 지역과의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불만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가져 왔다.⁵⁰⁾ 흔히 소수민족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와 연해 지역의 공산품 간

47) Schwartz, Circle of Protest, p. 45.

48) Schwartz, Circle of Protest, p. 210.

49) Ibid, p. 200.

의 불평등 교역은 소수민족에 대한 한족의 착취로서 소위 '내부 식민지 현상'(internal colonialism)으로 간주되기도 한다.⁵¹⁾ 또한 티벳 지역내에서 나타나는 티벳인과 한족간의 소득 격차도 하나의 불평등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셋째, 티벳의 대외 개방은 현대화된 사고와 가치관의 유입으로 낡은 관념을 깨우치게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외국과의 접촉은 서구의 민주주의, 인권, 민족자결 및 종교자유 등에 대한 인식과 자각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티벳의 경제적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관광산업도 티벳인들로 하여금 티벳 상황에 동조적인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더욱 빈번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통치에 보다 비판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⁵³⁾ 이와 관련하여 구소련의 해체나 이슬람 근본주의의 대두 등 중국 소수민족 관련 주변국가들의 변화도 중국내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운동을 가속화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⁵⁴⁾

그밖에 개혁 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에 대한 중앙 통제력 약화라는 일반적 현상 역시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중앙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편차를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소수민족 지역에서 현지인 간부의 비중은 증가되나 이들은 중앙정책 집행에 무관심하거나 분리주의 및 불법 종교활동에 대한 투쟁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반체제인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한다. 예컨대 당원으로서 무신론자여야 할 티벳 간부들이 달라이 라마의 사진과 종교적 장식품을 소장하고, 달라이 라마가 운영하는 인도 학교에 자녀를 보내 교육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⁵⁵⁾

50) 티벳이 급속한 경제성장 이룩한 1990년대 중반에도 여전히 연해 지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1995년 廣東의 GDP는 티벳의 96배에 달하고, 上海의 1인당 GDP는 티벳의 7.5배에 이른다. Peter T.Y. Cheng, Jae Ho Chung and Zhimin Lin, *Provincial Strategie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 Leadership, Politics and Implementation*(New York: M. E. Sharpe, 1998), pp. 8-10.

51) Dreyer, "Ethnic Minorities and National Integration," pp. 298; Magid, "Handle with Care," p. 21.

52) KOLAS, "Tibetan Nationalism," p. 55; Schwartz, *Circle of Protest*, p. 202.

53) Schwartz, *Circle of Protest*, p. 201.

54) June Teufel Dreyer, "The Potential for Instability in Minority Regions," David Shambaugh ed., *Is China Unstable?: Assessing the Factors*(Washington, D. C.: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1998), pp. 130-131.

55) *Ibid.*, p. 136.

티벳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 통제력 상실의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판첸 라마 지명과 관련한 문제이다. 즉 제11대 판첸 라마 인선 작업에 참여한 Chadrel Rinpoche가 사전에 관련 정보를 달라이 라마측에 넘겨 줌으로써 중국 정부의 공식 지명에 앞서 인도 망명정부가 먼저 지명을 선언하자, 티벳통치의 정통성과 권위에 손상을 받은 것으로 여긴 중국이 이를 무효로 규정하는 등 양자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티벳에 대한 중국의 보다 강경한 자세를 유발한 사건이다.⁵⁶⁾

2. 중앙의 대응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개혁 후 더욱 심각해지는 티벳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중앙의 대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티벳 사회의 각종 소요 등 분리주의 운동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정치교육을 포함한 反분리주의 캠페인, 시위관련자 체포 및 구금, 무력진압, 그리고 중국 역사상 최초인 1989년 3월의 라사시 계엄령 선포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즉 어떤 상황하에서도 중앙 또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 반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⁵⁷⁾ 특히 제11대 판첸 라마 지명 사건 직후인 1996년에는 그의 분리주의적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티벳 지역내에서 달라이 라마의 사진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⁵⁸⁾ 이것은 관용정책의 개혁기에도 분리주의에 대해서는 중앙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달라이 라마의 해외 망명정부에 대해서는 티벳소요의 원흉으로서 국제 적대세력과 결탁하여 조국을 분열시키는 분리주의 세력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한편⁵⁹⁾, 협상과 대화의 제스처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협상에

56) Mackerras, "The Minorities: Achievements and Problems," pp. 295-296.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Tibet Information Network and Human Rights Watch Asia, *Cutting Off the Serpent's Head: Tightening Control in Tibet, 1994-1995* (New York: Human Rights Watch, 1996).

57) 反분리주의운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Ronald D. Schwartz, "Resistance in Tibet, 1987-1990: The Anti-Splittist Campaign and Tibetan Political Consciousness," Barnett ed.,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pp. 207-237.

58) Mackerras, "The Minorities: Achievements and Problems," p. 295.

있어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협상한다는 ‘조건부 협상’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협상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상대가 받아 들이기 쉽지 않은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달라이 라마 측에 시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협상의 성사를 둘러싼 양자간의 주요 쟁점은 중국의 티벳통치의 역사적 사실 인정 문제를 비롯하여 티벳독립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완전한 포기 선언 여부, 자율 확대를 적용할 티벳 자치구의 지리적 범주 등에 대한 상호 입장과 견해 차이이다. 비록 중국은 달라이 라마의 망명정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나 달라이 라마의 존재가 미치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티벳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달라이 라마와의 평화적인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선전함으로써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⁶⁰⁾

셋째, 전술한 바와 같이 티벳문제는 국제관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협상력은 티벳 현지 상황 외에 중국과 서방국가와의 관계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예컨대 1970년대말 중미관계의 개선은 달라이 라마로 하여금 티벳독립의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고 티벳의 실질적인 자율확보 요구로 수정하게 한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중국-티벳간 협상의 기초를 마련했던 것을 들 수 있다.⁶¹⁾ 따라서 중국은 티벳문제의 국제화로 인해 天安門事件과 같이 티벳의 인권 및 종교 탄압 문제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對중국 압력 내지 체제변화(和平演變) 획득에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티벳문제의 국내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內政不干渉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티벳통치의 역사적 사실, 티벳지역의 발전상, 중국의 티벳통치의 정당성 등을 홍보하는 동시에,⁶²⁾ 중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59) 直雲, “搞‘西藏獨立’是沒有前途的,”『中國西藏』, 1994年 第6期, 2-4쪽; 洛桑丹珍, 赤來, “西藏社會的發展進步與黨的統一戰線,”『西藏研究』, 1995年 第3期, 12쪽; 潘建生, “統一戰線是西藏穩定和發展的法寶,”『西藏研究』, 1995年 第4期, 7쪽.

60) 달라이 라마와 중국과의 협상 과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Dawa Norbu, “China’s Dialogue with the Dalai Lama 1978-90: Prenegotiation Stage or Dead End?,” Pacific Affairs, Vol. 64, No. 3(Fall 1991), pp. 351-372; Tsering Wangyal, “Sino-Tibetan Negotiation since 1959,” Barnett ed.,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pp. 197-206.

61) Norbu, “China’s Dialogue with the Dalai Lama,” p. 351.

62) 이런 선전적 논조는 Beijing Review를 비롯하여 China Today, China Daily News 등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행물에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다음 자료들을 들 수 있다.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PRC, “New Progress in Human Rights,” pp. 12-22; Information

개선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⁶³⁾

즉 중앙정부는 티벳 내부의 분리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강경 진압의 자세를 취하는 한편, 해외 망명정부에 대해서는 조건부 협상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며, 국제압력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에 대한 저항적 자세와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등 강·온 양면을 병행하는 다양한 대응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일련의 티벳 소요 사태가 주로 해외 분리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티벳지역의 반정부 운동과 해외 망명정부 활동 및 국제 사회의 여론이 상호 상충작용하는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삼자간의 연계를 분리시켜고자 노력하고 있다.⁶⁴⁾

이런 중앙의 대응정책은 국내외로부터 오는 분리와 독립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압력에 대응한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단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분리주의에 대한 억제"에만 만족할 수는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티벳의 안정과 중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PRC, "Tibet: Its Ownership and Human Rights Situation," pp. 9-42; Wang Guozhen, "Is Tibet an Independent Country?," Beijing Review, August 17-23, pp. 17-19.

63)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티벳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기타 소수민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1994년 李鵬 총리의 중앙아시아 순방 목적 중 하나는 新疆 분리주의에 대한 이들 동일 종족의 新疆 지원 가능성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데 있었으며, 1996년 러시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 카자흐스탄 등과의 안보협약 역시 1997년 江澤民 주석의 미국 방문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대외관계 개선으로써 민족문제에 대한 외부 압력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Mackerras, "The Minorities: Achievements and Problems," pp. 302-306.

64) 이와 관련된 하나의 조치로서 1994년 이후 달라이 라마와 연계를 맺고 있는 티벳 간부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당정 기관내 한족 간부들의 지도적 위치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문건이 北京으로부터 하달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中國時報』(臺北), December 11, 1994, Liao, "The Recruitment and Training of Ethnic Minority Cadres," pp. 59-60에서 재인용.

IV. 개발주의 전략의 추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티벳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전략적 선택은 바로 '티벳개발을 통한 티벳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경제주의적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앙의 티벳 통치 전략은 시기적으로 1992년 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 가시화되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1994년 7월에 개최된 [제3차티벳공작회의] 이후 본격화되었다. 주지하다시피 鄧小平의 南巡은 1988년 후반기부터 제기되었던 治理整頓의 경제 조정과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의 정치 통제라는 보수주의적 정책 기조를 극복하고 중국사회에 다시 한번 개혁개방의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일대 전환의 계기였다. 이어서 중앙 각 부처 및 지방 각급 정부에서는 南巡講話 학습열풍과 함께 개혁의 확대·심화를 강조하는 각종 회의, 행사, 견학, 정책 프로그램 등을 경쟁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이른바 '鄧旋風'(Deng whirlwind)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개혁의 심화와 완화된 정책 노선의 적용은 티벳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2년 3월 萬里는 全人大 티벳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티벳의 개혁과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당중앙이 에너지, 통신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 후 티벳자치구 정부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투자 및 기술 유치를 위한 대외 협력, 내륙과의 연계, 향진기업 육성, 변경 무역 및 관광산업 진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 심화 정책의 구체적 조치들을 발표하였다.⁶⁵⁾ 따라서 南巡講話 이후 중국 사회의 개혁 바람과 티벳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은 티벳개발 정책 추진에 유리한 대내외적 분위기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앙의 '티벳 개발' 전략이 구체화된 것은 [제3차티벳공작회의]를 통해서이다. 이 회의를 계기로 티벳 개발을 위해 총 62개 프로젝트 분야에 대한 건설 투자가 결정되었다. 티벳자치구 건립 30주년(1995년)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소위 '大慶工程'이라 불리우는 이 건설 계획은 중앙과 각 지방이 티벳의

65) 티벳 지역의 개혁 개방 확대 결정, 외국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 등의 문건은 劉實榮 寧家生 主編, 『中國沿邊開放與周邊國家市場』(北京: 法律出版社, 1993), 480-491쪽. 이런 정책 제기의 배경에 대한 분석은 Hollis S. Liao, "Tibet's Economic Reform Since Teng Hsiao-p'ing's South China Tour," *Issues & Studies*, Vol. 30, No. 3(March 1994), pp. 15-34.

농업, 水利, 에너지, 공업, 수송, 전자통신, 교육, 문화, 보건 등의 각 분야에 걸친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당초 23억 8천만元の 투자액을 계획하였으나 1997년말 현재 실제 60개 프로젝트에 대해 38억元이 투자되었다.⁶⁶⁾

티벳에 대한 중앙의 기본건설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티벳 현대화 정책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예컨대 티벳자치구정부 성립 20주년 기념으로 1984년에 국가에서 4.8억元을 투자하여 에너지, 교통, 상업, 문교, 위생, 관광, 체육 등 43개 프로젝트 건설(43項工程)이 추진되었으며, 1990년 江澤民 총서기의 티벳 시찰시 제기되어 1991년 '8.5계획 및 10년 계획'에 상정된 뒤 약 10억元 상당의 예산 투자로 티벳 중부유역에 대한 집중 개발을 위해 소위 '一江兩河' 프로젝트가 추진된 바 있다.⁶⁷⁾ 그러므로 중앙의 티벳개발 정책은 개혁 이후 추진되어 온 티벳 발전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티벳에 대한 유화정책과 개혁 추진이 각종 소요사태를 유발시킴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경제주의적 해법을 고수하고 있는가?

[제3차티벳공작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티벳 개발은 티벳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종의 '開發主義'(Developmentalism)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첫째, 전략적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소수민족 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해-내륙간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지역발전 계획과, 빈부격차 해소라는 사회불만 해결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이다. 즉 지역격차를 해결하여 고도 성장의 부작용도 해결하고 소수민족 문제도 해결하여 사회통합도 이룩한다는 것인데, 그 기본전제는 소수민족 문제의 근본도 결국은 빈곤 낙후가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⁶⁸⁾ 그리고 티벳이 낙후된 원인은 봉건적 형태의 자연경제가 생산력 발전을 구속하기 때문인데,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대외경제교류 및 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국내외 문명의 성과를 흡수해야만 티벳사회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안정된 정치 상황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사회환경이 되고 경제발전은 티벳의 장기적인 안정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는 생각이다.

66) Jiang Wandu, "62 Projects Benefit Tibetan People," Beijing Review, July 27-August 2, 1998, p. 18.

67) 吳健禮, 『西藏經濟概述』(北京: 中國藏學出版社, 1995), 21쪽.

68) Dreyer, "The Potential for Instability in Minority Regions," p. 126.

이런 논리적 관계를 흔히 개혁, 발전, 안정 간의 관계로서 설명하는데 “개혁은 원동력, 발전은 근본, 안정은 전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중앙은 “한편으로는 反분열투쟁을 전개하여 국면을 안정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양면적인 정책(兩手抓)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⁶⁹⁾

따라서 중앙은 티벳정책이 부작용을 초래한 것은 개혁의 실패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티벳을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 즉 개혁의 심화로써 현재 당면한 티벳의 낙후와 불안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개혁의 일부 성과와 그에 따른 혜택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1980년대에 티벳은 여전히 중국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고, 경제성장의 주요 지표라 할 수 있는 非농업 부문의 성장이 오히려 둔화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1985년에는 비농업 부문이 전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였는데 1992년에는 5.5%로 감소되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⁷⁰⁾

둘째, 중앙이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주의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것은 티벳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일반에 대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 각 소수민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경제발전 추진 방식을 취하고자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목적과 전략적 사고는 동일하나 구체적인 정책집행 방식은 개별 소수민족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廣西自治區의 경우엔 소위 沿海·沿邊·沿江 지역의 대외 개방을 심화시킴으로써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개발 방식’(開放開發型), 그리고 雲南은 담배생산을 기초로 에너지·화공·기계 등의 주도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발전의 성과를 내고 있는 ‘주도산업발전형’(主導產業型)이라고 한다면, 新疆 및 內蒙古는 석탄·석유 등 부족자원의 개발을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는 ‘자원개발발전형’(資源開發型)이라고 할 수 있다.

69) 王福臨 主編, 『共同富裕之路: 中國民族地區經濟發展的實踐與研討(第3卷)』(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7), 173쪽; 倉決卓瑪, “試論我區發展與穩定的辨證關係, 『西藏研究』, 1997年 第4期, 52-55쪽.

70) 胡鞍鋼, 王紹光, 康曉光, 『中國地區差距報告』(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97), 236쪽.

이런 점에서 티벳은 기간시설 투자를 통해 경제개발을 촉진해 주는 '발전추동형'(發展推動型)이라고 할 수 있다.⁷¹⁾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티벳 지원을 위한 62개 프로젝트 대부분이 기본건설 투자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점이다. 그 중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중앙에서 294만원을 투자하여 1995년에 완공된 Rinbung Liberation Canal은 300헥타르 면적의 토지에 관개 시설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1996년 해당 지역 곡물 생산이 30만kg 이상 증산되도록 하였다. 또한 Dingqing 수력발전소를 비롯하여 6개의 기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37,400kW 용량의 연간 발전량 206백만 kW/h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기본적인 전력부족 현상의 해소와 TV시청을 가능케 하였다.⁷²⁾ 티벳은 지리 및 기후적 조건으로 인해 중국에서 유일하게 기차와 수로가 통할 수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도로와 항공 발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중앙은 이미 '8.5' 기간 중에 3.8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데 이어 그 뒤 10년간 10억원을 주요 도로의 보수 및 확장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현재 1개 현(墨脫縣)을 제외한 전 縣과 77%의 鄉鎮에 도로가 건설되어 있다. 또한 2.7억원을 투자하여 拉薩와 昌都를 비롯한 주요 공항의 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등 현재 4개의 비행장을 구비하고 국내의 노선을 계속 증편함으로써 항공 분야도 地方航空公司로서의 조건을 갖추 정도 발전하였다.⁷³⁾ 특히 통신시설이 대폭 개선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티벳에서의 전화 이용은 극히 불편하여 대부분의公務는 물론 심지어 사적인 편지 내용도 電報를 수단으로 하는 것이 일상화된 형편이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케이블 및 통신위성 수신소의 건설을 통해 현재 자치구 전체의 약 절반 가량에 직통전화를 개설하였고 어느 지역과의 통화도 용이하게 되었다고 한다.⁷⁴⁾

셋째, 추진 방법에 있어서 중앙의 지원 외에 각 지방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

71) 王福臨 主編, 『共同富裕之路』, 93-94쪽.

72) Gyaren, "Nationwide Support to Tibet," Beijing Review, July 28-August 3, 1997, p. 20.

73) 五省區七方'中國大西南在崛起'編寫組, 『中國大西南在崛起』(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4), 366-367쪽; 賈星客, "西藏的發展: 現代化平台與生態補償機制"(a paper presented in Workshop on China's Provinces in Reform, Yunnan Normal University, Kunming, Yunnan Province, P. R. C., 6-8 October 1998), 3-4쪽; "共同托起西藏的穩定與繁榮," 『人民日報』, 1998. 8. 12; 王福臨 主編, 『共同富裕之路』, 170쪽.

74) 賈星客, "西藏的發展," p. 4.

이다. 즉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중앙 관계 부처의 계획과 지원 외에 중국의 29개 省과 自治區 및 直轄市의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1995-1997년 사이에 티벳인에 대한 기술 교육을 위해 약 600여명의 기술자가 각지에서 티벳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62개항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약 700여명의 관리인력이 특별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약 1,800명의 교사, 농촌의사, 문학 및 예술 계통의 인력이 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티벳에 대한 과학기술지원에 관한 전국회의가 1995년에 개최되어 공동연구, 무상기술이전, 과학연구 기금 및 시설 지원 등 80여개의 내륙 과학연구기관이 티벳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⁷⁵⁾ 즉 각 지방 및 기관이 프로젝트 항목별로 업무를 분담하고(分片負責), 이에 대한 지원을 '1:1' 형식으로 전담하는(對口支援) 방식을 취하고 있다.⁷⁶⁾ 이런 점에서 티벳 개발은 국가 차원의 '지역간 경제협력'(橫向經濟聯合)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장화 개혁의 진전으로 중앙의 계획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는데, 이는 특히 중앙 재정 능력의 감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중앙이 발전 지역과 낙후 지역간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행정명령을 통해 발전 지역이 낙후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⁷⁷⁾ 중앙이 낙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 지역을 동원하는 것은 중앙 재정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상호협력의 학습효과가 지역간 갈등이나 지방보호주의적 폐단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이다.⁷⁸⁾ 티벳의 경우, 발전 지역은 물론 낙후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각 지방이 티벳의 특정 분야를 지원하도록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례라고 하겠다.⁷⁹⁾

75) Gyaren, "Nationwide Support to Tibet," p. 20.

76) 북경현지인터뷰(1998. 8. 11.)

77) 이런 '수직적으로 유도된 지역간 수평적 협력망'의 형태를 포함하여, '수직적 자원보조', '수직적 정책지원',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간 수평적 연계망' 등 지역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 정책 대안의 유형, 유인구조, 그리고 효과 및 한계를 다룬 연구는 정재호, "지역간 수평적 경제연계: 기원, 유형, 유인구조에 관한 연구,"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론』(서울: 나남출판사, 1999), 273-311쪽.

78) 정재호, 위의 책, 298쪽.

79) 이런 중앙 주도에 의한 각 지역의 지원 외에, 티벳 자치구의 자구 노력에 의한 지역간 경제협력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티벳은 자발적 형태의 지역간 경제협력조직이라 할 수 있는 西南五省區七方經濟協調會를 비롯하여 西南經濟區市長聯席會, 川滇青藏少數民族毗鄰經濟協作

넷째, 티벳에 대한 지원의 형태에 있어서, 과거의 貧困補助, 生活救濟, 輸血經濟에서 經濟開發, 生産支援, 造血經濟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즉 과거에는 중앙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여 빈곤상태를 단순 구제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티벳의 자체 능력을 배양하여 스스로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자생능력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자인 소위 '생활보조'(生活扶貧)는 1980년대초까지 주로 적용되었던 방법으로서 빈곤 가정(貧困戶)에 대한 생활 구제의 형태이다. 이것은 빈곤 가정에게 식량, 식용유, 차, 소금 등 생필품의 공급을 통해 당면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일시적인, 단기적인 조치(治標)였다. 후자의 경우는 1990년대 들어,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開發扶貧'의 방식이다. 이는 현지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금, 물자, 인력 등을 투입함으로써 기초 조건을 개선하고 상품생산을 발전시켜 기본적인 생산능력과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는 형태로서 보다 중장기적인 문제해결 방식(治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빈곤 구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티벳 지역의 전면적인 경제개발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⁸⁰⁾

이와 같은 빈곤구제 작업을 위해 1994년 國務院은 [國家八七扶貧攻堅計劃]을 공표하였고, 이에 기초해 티벳은 1995년 [西藏自治區扶貧開發會議]를 개최하여 [西藏自治區扶貧攻堅計劃]을 제기하였다. 빈곤 구제를 위한 정책 집행에 있어서 채택된 특징적인 방식은 소위 '四定一簽'의 제도이다. 즉 구제 대상, 항목, 자금, 효과를 먼저 정하고(四定), 각급 관련 당정 간부 및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빈곤 가정과 계약을 체결(一簽)하도록 하다는 의미인데, 그 취지는 자치구의 각 당정 간부와 빈곤 가정을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대부분의 빈곤 가정이 특정인의 관심과 지원하에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각 당정 간부 및 소속 기관은 계약에 의해 결정된 구체적인 구제 대상을 규정된 시일내에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현재 이 규정은 최근 티벳자치구의 각 기관 및 간부들에 대한 업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고 있다.⁸¹⁾

區 등에 참여함으로써 단순한 물자 교류에서부터 경제, 기술, 교통, 정보, 금융 등 분야에 이르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정부간 정책 협조 및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五省區七方「中國大西南在崛起」編寫組, 「中國大西南在崛起」, 356-373쪽.

80) 韓光·薛保平·鄒德斌·王福利·洛桑雲登, 「西藏扶貧開發問題的研究」, 『西藏研究』, 1997年第3期, 18쪽.

81) 羅絨占堆, 「西藏, 在向貧困開戰」, 『中國西藏』, 1998年 第2期, 17쪽.

그리고 扶貧작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은 ‘당정 최고지도자 책임제’(黨政一把手責任制)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扶貧작업의 성패는 각급 정부 업무에서 扶貧 작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어느 정도 자원과 노력이 투입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 지도자가 기층으로 내려가 실제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지도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직접 안배·배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감독·조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⁸²⁾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빈곤 가정에 대하여 개별 카드기록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自治區扶貧辦公室에서 만든 이 카드에는 기본적인 가정형편, 빈곤원인, 빈곤탈피 목표 및 계획, 주요 조치, 매년 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빈곤 가정 카드기록부(貧困戶卡片檔案)는 빈곤 가정과 관련한 통계의 기초 자료가 되며 빈곤구제계약 체결시에 대상자의 현황파악을 위한 근거 서류가 되는 동시에 상급기관의 조사시에도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다.⁸³⁾

이런 방식을 통해 그간 빈곤구제 사업에 투입된 인력과 자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치구의 45개 廳局級 기관, 地縣(市)級에서 300여개의 扶貧工作組를 파견하고 1,800여명의 간부들이 기층으로 내려가 縣, 鄉, 村의 빈곤탈피 작업을 직접 도와주었다. 자금 지원은 1995년에 1억 1,760萬元, 1996년에 107개 프로젝트에 2억 7,783萬元이 투입되었다. 1997년에는 중앙정부의 1억 8,100萬元(무상 1억 3,100萬元 포함), 자치구 3억 3,400萬元, 자매성시(對口省市)의 빈곤구제자금 및 기타 사회 각계의 성금을 포함하여 총 약 6억元に 이른다. 이는 1인당 평균 1,800元으로서 기록적인 대규모 투입이 이루어졌다.⁸⁴⁾ 이런 노력을 통해 1994년 당시 국가 및 자치구에서 선정한 18개 貧困縣(티벳 73개 縣의 24.6%)에 약 48만명의 빈곤인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1995년에는 45만명으로 줄었고, 1997년에는 다시 33만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⁸⁵⁾

이상과 같은 “개발을 통한 빈곤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간접자

82) 韓光 等, “西藏扶貧開發問題的研究,” 17쪽.

83) 羅絨占堆, “西藏, 在向貧困開戰,” 18쪽.

84) 羅絨占堆, 위의 글, 19쪽.

85) 韓光 等, “西藏扶貧開發問題的研究,” 13쪽.

본 투자 및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집중 투여되었다. 이로써 티벳은 상술한 전기, 통신, 교통 외에도 현재 교육, 보건, 언론, 상업, 관광업, 해외 개방 및 변경 무역 등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⁶⁾ 이런 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나타나는 티벳 사회의 발전상을 가장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은 티벳자치구가 1994-97년 4년간 연평균 14.5%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사실이다.⁸⁷⁾ 이는 경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내내 중국내에서 상대적 赤貧 상태를 면치 못했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크게 호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개발 요법의 한계

다민족국가로서의 중국에서는 개혁을 통해 사회가 보다 다원화될수록 사회 통합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국가목표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티벳의 안정은 국가의 안정에 관계되고, 티벳의 안전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다”라는 江澤民 총서기의 언급은 티벳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중앙정부의 인식을 잘 반영해 준다.⁸⁸⁾ 소수민족 중에서도 가장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티벳의 분리주의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전통적인 이중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즉 분리주의운동에 대한 反분열 활동과 함께, 중국통치에 대한 정통성 확보를 위해 티벳 개발의 추진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양면정책(兩手抓)에 있어서 前者가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면 後者は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티벳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기

8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들을 참조. Gyaren, "Nationwide Support to Tibet," pp. 19-20; Jiang Wandu, "62 Projects Benefit Tibetan People," Beijing Review, July 27-August 2, 1998, pp. 18-20; 五省區七方'中國大西南在崛起'編寫組, 「中國大西南在崛起」, 365-369쪽; 賈星客, 「西藏的發展」, 1-6쪽; 「共同托起西藏的穩定與繁榮」, 「人民日報」, 1998. 8. 12; 陳家勳主編, 「沿邊開放」, 230-233쪽; 王福臨 主編, 「共同富裕之路」, 167-174쪽.

87) 賈星客, 「西藏的發展」, p. 6; 북경현지인터뷰(1998. 8. 11). 이런 급속한 경제성장이 '62項 工程'의 효과임을 보여주는 근거로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준공된 시점(1997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이 추정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西藏社會科學院經濟形勢分析課題組, 「1996年西藏經濟形勢及1997年展望」, 「西藏研究」, 1997年 第3期, 8쪽.

88) 人民日報」, 1998. 8. 12.

별로 다소간의 정도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제주의적 접근이 개혁기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방식을 통해 사회주의적 정치통합을 추구하는 중국의 티벳정책은 다소 역설적이다. 또한 티벳에 대한 유화정책과 개혁 추진이 각종 소요사태를 유발시킴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여전히 경제주의적 해법을 고수하는 이유 역시 “민족문제는 경제문제”라는 이데올로기적 합리화나 “개혁의 심화로써 개혁의 부작용을 극복한다”는 전략적 사고의 논리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경제발전을 핵심목표로 설정한 국가 정책노선의 영향, 중앙 지도부의 성향, 장단기 대응의 이중성, 그리고 현실적인 근본 대안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족한 설명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적인 이유들일지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종합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자생적 발전을 유도한다는 이런 중앙의 경제주의적 정책이 최근 티벳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이것이 티벳의 안정을 가져다 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개발주의적 療法은 다음 몇가지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먼저, 티벳 개발을 목표로 하는 중앙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요인으로서, 자연조건의 측면에서 한계를 구성하는 티벳의 지리환경적 특수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티벳인의 낙후된 교육 수준 및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문화 역시 각종 현대화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예로서 중국 전체 티벳인(藏族)의 문맹율은 69%(1990년 인구조사 기준)이고, 그 중 티벳 자치구내 티벳인의 문맹율이 66.7%로서 지역사회의 관리 및 경영을 담당할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⁸⁹⁾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경제적 이익이나 물질적 혜택보다는 종교적 가치나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티벳인들의 신앙적, 문화적 행태도 결코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⁹⁰⁾

89) 馬戎, 『西藏的人口與社會』, 362쪽. 이런 티벳발전의 인적 장애 요인에 대한 설명은 黃世榮, “搞活西藏國有企業的探索”, 『西藏黨校』, 1996年 第3期, 40-41쪽; 王太福, “西藏經濟發展的幾個戰略的問題”, 『西藏研究』, 1998年 第1期, 3쪽.

90) 예컨대 티벳인들은 돈을 벌면 성지순례, 현금, 사원건축 등에 주로 소비하며, 중국 개혁의 상징적 산물인 ‘萬元戶’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티벳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개혁보다는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북경현지인인터뷰(1998. 8. 11); Wang Xiaoliang, “The Dispute Between the Tibetans and the Han: When Will It Be Solved,” Barnett ed.,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pp. 293-294.

또한 개발전략의 추진 방법상 지방을 동원하고 있는데 구체적 정책 효과에 있어서 자발성과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 중앙의 재분배 기능 약화라는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지방동원 전략은 중앙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도 각 지방의 자발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중앙정부의 행정명령이 단기적으로는 권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자기 지방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장기적으로도 타지방의 발전이나 공동번영을 위해 계속적인 희생을 일방적으로 감수하도록 유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⁹¹⁾

무엇보다 티벳인들과 해외 망명정부는 티벳에 대한 '인구이동' 정책이 중앙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앙의 티벳 개발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즉 "한족 이주에 의한 티벳의 대리 개발"이 하나의 同化 政策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다.⁹²⁾ 현재 티벳 개발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1992년 이후 개발 과정에서 티벳의 한족 이주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몇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⁹³⁾ 또한 개발 사업이 티벳의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와 아울러, 개발의 결과에 있어서도 티벳발전의 혜택은 한족이 향유함으로써 티벳인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⁹⁴⁾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3차티벳공작좌담회]에서 제기된 62개항의 건설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개발주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91) 이를 집단회피현상(team-shirking)과 무임승차의 문제(free-riders problem)로 설명한 기존 연구는 정재호, "지역간 수평적 경제연계," 283쪽.

92) Grunfeld, *The making of Modern Tibet*, p. 242.

93) 예컨대, Kransky는 티벳 변경의 검문소 폐쇄를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다. 즉 티벳과 인접 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검문소는 1986년 이래로 밀수품과 지방산업 보호 위해, 그리고 인력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인데, "상품 유통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992년에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인구이동 및 거주에 관한 행정통제가 완화되고, 個體戶에 대한 영업허가가 간소화되었으며, 인력교환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인력을 유입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John Kransky, "Central Lhasa and Migr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onsequences," *Provincial China: Research, News, Analysis*, No. 2(Oct. 1996), pp. 16-38.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서 여행자유화 조치, 한족 경영의 기업수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Grunfeld, *The making of Modern Tibet*, pp. 245-247.

94) Kransky, "Central Lhasa and Migration," pp. 31-34.

즉 李鵬 총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티벳의 자체 개발 능력은 매우 취약”하므로, 내륙으로부터의 인력 및 투자가 필수적인데, 이런 자질을 갖춘 인력이란 한족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들 건설 프로젝트는 티벳의 한족화 내지 티벳에서의 한족 거주와 통치를 공고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⁹⁵⁾

반면에 중앙정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현재 자생적 능력이 결여된 티벳을 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티벳인의 복지 향상과 함께 이를 기초로 지역 안정 및 국가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즉 중앙은 티벳의 경제발전이 분리주의운동을 좌절시키고 티벳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보장책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여러 매체를 통해 이런 정책 의도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티벳 개발 의혹의 ‘그릇된 인식’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⁹⁶⁾ 따라서 이런 양자간의 근본적인 불신과 갈등이 효과적인 중앙의 티벳 정책 집행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티벳지역의 각종 소요와 분리주의운동은 비록 중앙정부가 물리적 통제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티벳통치에 대한 정통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혁기 중앙의 티벳정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적극 추진하는 ‘시혜적인’ 티벳개발 정책은 티벳인들로부터 티벳인의 同化와 티벳지역의 ‘和平演變’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불신받고 있다. 따라서 티벳의 개발이 강한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 티벳인들의 독립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 고도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소수민족 문제가 개발론자들의 주장처럼 經濟 療法을 통해 과연 해결될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95) *Ibid.*, p. 305.

96) 티벳의 한족 이주 ‘움모’에 대한 중국측 반박으로서는 다음을 참조. *Beijing Review*, September 2-8, 1996, p. 4; *Beijing Review*, March 3-9, 1997, pp. 14-15. 그리고 학술적 측면에서의 반론을 위해 라사시 한족 거주형태의 특징을 분석한 글은 Rong Ma, “Han and Tibetan Residential Patterns in Lhasa,” *China Quarterly*, No. 128(December 1991), pp. 814-835.

<참고 문헌>

- Robert Barnett ed.,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 Ronald, David Schwartz. 1994. Circle of Protest: Political Ritual in the Tibetan Uprisi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A. Tom Grunfeld, The making of Modern Tibet(New York: M. E. Shape, 1996)
- 戴康生, 彭耀. 1996. 『社會主義與中國宗教』. 江西: 江西人民出版社.
- 馬 戎. 1996. 『西藏的人口與社會』. 北京: 同心出版社.
- 郝時遠. 1996. 『中國的民族與民族問題』. 江西: 江西人民出版社.
- 吳健禮. 1995. 『西藏經濟概述』.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木楨, 倪慧芳 主編. 1997. 『邊疆少數民族地區社會穩定與發展』. 北京: 中國 社會科學出版社.
- 中共西藏自治區黨史資料征集委員會 編. 1990. 『中共西藏黨史大事記』. 西藏: 西藏人民出版社.
- 江平, 李佐民, 安盈亭, 辛文波. 1996. 『西藏的宗教和中國共產黨的宗教政策』.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多杰才旦. 1991. 『西藏的教育』.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李維倫. 1989. 『西藏實踐與理論探索』. 西藏: 西藏人民出版社.
- 余國信, 王朝才 主編. 1996. 『民族地區財政研究』.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肖懷遠 主編. 1994. 『西藏農牧區-改革與發展』.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平措汪杰 主編. 1995. 『中國民族自治州投資指南』.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張小平. 1997. 『走向二十一世紀的西藏』.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劉先照, 苗長發 主編. 1990. 『新時期民族工作文 獻選編』. 北京: 中國文獻出版社.
- 孫勇主 主編. 1991. 『西藏-非典型二元結構下的發展改革』.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張爾駒 主編. 1988. 『中國民族區域自治的理論和實踐』.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中共中央統戰部二局, 中共中央黨校教務部 編. 1994. 『新形勢下的民族, 宗教問題』. 北京: 人民出版社.
- 張天路. 1989. 『西藏人口的變遷』.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曹自強, 毛翔, 喜饒尼瑪 編. 1995. 『西藏的寺廟和僧侶』.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 肖懷遠. 1995. 『西藏農業結構與糧食流通』.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楊清震 主編,『中國少數民族地區邊境貿易』,太原:山西教育出版社.

Flemming Christiansen and Shirin M. Rai, Chinese Politics and Society: An Introduction(New York: Prentice Hall, 1996)

Melvyn C. Goldstein, "Tibe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Reflections on the Tibet Question"(An Occasional Paper of the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April 1995), pp. 1-72.

Wang Xiaoqiang, "The Dispute Between the Tibetans and the Han: When Will It Be Solved," Robert Barnett ed.,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p. 293-294.

Peter T.Y. Cheng, Jae Ho Chung and Zhimin Lin, Provincial Strategie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 Leadership, Politics and Implementation(New York: M. E. Sharpe, 1998), pp. 8-10.

肖懷遠 主編,『西藏農牧區改革與發展』(北京:中國藏學出版社, 1994)

多杰才旦,『西藏的教育』(北京:中國藏學出版社, 1991)

江平 主編,『西藏的宗教和中國共產黨的宗教政策』(北京:中國藏學出版社, 1996)

因地制宜에서 因族制宜(185쪽): 木楨 主編,『邊疆少數民族地區社會穩定與發展』(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본 참고문헌(pp.211-212) 및 영문제목(p.179)
은 삭제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편집과정상의
착오로 삽입된 것입니다.